SHARE TB Q&A

상담_**김은배** 서울지부 복십자의원장

KNTA에 물어보세요

question 01

결핵예방약 기간에 대해 문의드려요.

제가 작년 호주에 왔을 때, 두 아이 모두 결핵판정을 받고 6개월 치료 후 현재 9개월 예방치료약 시럽과 태블릿 반 알을 매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약을 3개월 치씩 두 아이 분을 받아서 먹였는데 시럽을 충분히 주질 않아 규칙적인 복용이 힘들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큰아이 경우 10밀리씩 먹는 시럽을 약이 떨어져 보름 남기고 끊었고요, 둘째는 5밀리씩 먹이고 있는데, 말을 해도 시럽을 빨리 주지 않아 보름 정도 남기고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름정도 일찍 끊어도 괜찮은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더욱이 한국이 아니라 궁금하여 문의 드려요.

잠복결핵 치료(결핵예방 치료)도 조기중단을 하거나 불규칙한 치료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처방하는 아이나(이소니아짓)로 치료를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9개월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question 02

소아결핵의 경우 궁금합니다.

소아 결핵의 경우 chest x ray 와 TST test 둘 다 양성인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4제 요법 HREZ 를 6개월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소아 같은 경우 안구 독성에 취약하므로 ethambutol은 투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4제 요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진료지침이 4제 요법을 써도 된다는 건가요?

과거에는 소아의 경우 시신경 부작용 때문에 에탐부톨을 투여하지 않았었지만, 최근 통상적인 용량으로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 안과적인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서 요즘은 소아에게도 투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4제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신경염이나 적록색구분 장애 등이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 안과 검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과 검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아 호흡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03

비활동성 결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건강검진 시 x-Ray 와 폐 CT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가 올해 9월에 건강검진 시 폐 CT에서 '경미한 비활동성 결핵에 의한 섬유화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먼저 결핵 걸렸던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걸렸던 거라면 가족들에게 전염됐을지도 모를까 봐 걱정입니다. 가족들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비활동 결핵이면 잠재보유자라는 것인데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비활동성 결핵이라 함은 과거에 결핵치료를 받고서 완치를 했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어도 자연치유가 되어서 현재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병변이 없었다가 최근에 흉부 영상에서 비활동성 결핵으로 발견되었다면, 실제로는 혹시라도 활동성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객담 검사를 2~3회 정도 해보시는 것이 좋고, 또한 향후 정기적으로 결핵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04

폐결핵치료 중 흡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결핵 치료 중입니다. 결핵약 복용한 지 3~4개월 됐는데 흡연을 했습니다. 3개월 흡연을 하다 보니 기침을 합니다. 담배를 끊을 생각인데 기침을 좀 하는 게 마음이 걸리네요. 혹시 흡연으로 인해 폐결핵 완치가 안 될 수 있나요?

결핵약을 매일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고 있으면 다소 흡연을 하더라도 흡연 자체 때문에 완치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흡연을 하게 되면 폐와 기관지 등에 염증을 일으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결핵치료 기간뿐만 아니라 결핵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폐와 기관지 보호 및 후유증 감소 등을 위해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05

약 복용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폐결핵으로 진단받아서 1차 약을 복용한 지 한 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침 식전 1시간 전에 약 전부를 복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낮에 무기력증. 졸림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어서 약 복용시간대를 잠자기 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잠자기 전으로 약 복용시간을 바꾸면 보통 약 먹기 몇 시간 전부터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복상태 유지 시간 동안 예를 들어 보리차, 홍차, 커피 종류는 일절 금지인지 더불어 궁금합니다. 제가 잠자기 전까지 책을 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 설탕이 들어간 아메리카노 커피나 홍차 등 물 종류를 자주 마시게 돼서요.

부득이하게 결핵약(초치료 1차 약)을 저녁에 드실 경우 위장 등을 고려하여 취침 전보다는 저녁 식전 약 1시간 전에 복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용할 경우 약의 흡수와 효과를 위하여 점심 식후부터 저녁 식사 때까지 및 저녁 식후부터 약 1~2시간 정도는 간식 등을 가능한 한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06

다제내성 결핵의 전염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기 아빠가 두 달 전 다제내성 결핵을 판정받고 현재 음압시설이 되어있는 3차 병원에서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7개월 된 아기가 걱정되어 결핵검사를 받았는데, 근처 병원에서 엑스레이 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왔으나, 피부반응 검사에서 15mm 양성반응이 나와서 아이나를 한 달간 복용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학병원을 찾아가 소아결핵 전문의를 만나 진료 받은 결과, BCG 주사와 피부반응 검사하는 주사가 항원이 겹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혹 양성반응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여 혈액 검사까지 했습니다.

며칠 뒤 아기의 혈액 검사는 음성으로 나와서 일단 약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는 아기 아빠가 다제내성 결핵 진단을 받았으므로 어떤 약에 내성이 있는지 검사해놓은 결과를 기다려보고 아기의 약복용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시더군요.

아직 아빠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인데, 아기는 약복용을 중단해도 되는가요? 약을 먹다가 중단한 경우 내성이 생긴다고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더욱이 BCG를 접종했는데도 결핵에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어린 (7개월) 아기가 결핵에 걸린 사례도 있나요?

BCG의 결핵 예방 효과가 좋지만 완벽하게 예방은 못 하므로 접종했더라도 결핵에 걸릴 수 있고, 실제로 소아 결핵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아이들이 잠복결핵 감염으로 확인되면 예방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다제내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아이의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할 약제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권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결핵 발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는 수도 있으니, 2년 이상의 기간 정기적으로 결핵 검사를 받아서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